

論 叢

現外換制度가 輸出增大에 미치는 影響

韓國經濟人協會 調査部

朴 鍾 一

< 內 容 >

- 1 現外換制度의 分析
- 2 現行買上集中制度와 輸出增大
- 3 輸出增大을 爲한 外換制度

1. 現外換制度의 分析

漫性的인 國際收支의 逆調下에 있는 國家들은 外換受払에 一定한 統制를 加하므로써 國際收支의 均衡을 圖謀코저함이 一般的 現象이다.

이것은 換時勞의 媒介變數的인 效能에만 依存하여서는 國際收支의 均衡化를 期할수 없는가닭이다.

이와같은 外換에 對한 統制를 外換管理 또는 集中이라고 하는바 元來 外換의 集中이란 外換使用의 效率化를 期하기 爲하여 國家가 卽時 處한 國際收支의 狀況과 展望에따라서 伸縮性있게 決定하는것이 通例이다.

集中의 方法에는 周知하는 바와같이

첫째 自己가 取得한 外貨는 自己個人이 保有하거나 自由로운 處分을 할수없고 政府 또는 公認된 銀行에 強制로 売却集中케

해서 效果있는 外換의 管理를 期하자는 이른바 外換買上集中制와
둘째 取得한 外貨를 外換銀行의 自己計定에 預置시켜 自由롭
게 使用할수 있게하는 外換預置集中制으로써 이에 亦是 個人이
保有할수 있는 外貨의 限度, 自由処分權 保有当事者等 一定한 制
約을 함이 普通이다.

이들 集中制는 共히 對外支払을 効率的으로 規制하여 輸入代金
支払 및 其他 支払에 必要한 外換을 適正按配하여 物資需給의
円滑을 期하고자 함은 勿論 海外로의 財産逃避를 막는데 그 主
目的이 있다.

이와같은 二種의 集中制中 現在 우리나라 에서는 外換買上集中
制를 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一切의 外換은 政府가 買上하고 外換을 使用할 사람은
다시금 政府에서 買入로록 되어있는 것이다.

이것은 從前에 預置集中制下에 있던것을 保有外換이 激減하여
감에따라 그의 使用에 보다 効率化를 期하고자 61年12월에
公布한 外國換管理法에 依하여 收入된 一切의 外換을 外國換銀行
에 売却로록 하여 從前의 預置集中制에서 終戰後 定式화된 方法
인 買上集中制로의 還元을 말하는 것이다. 이로서 外國換審議委
員會를 設置하고 政府의 外貨使用計劃의 執行 및 그 結果에 關
하여 審議 分析을 하며 財務部長官은 每年 外換需給計劃을 樹立
하여야 하고 居住者 및 非居住者의 對外支払手段을 法の 定하는
바에 따라 集中케 함으로써 外國換의 管理를 徹底히 하고자 하
는 것이다. 換言하면 이것은 政府가 外換使用에 積極的인 介入
을 함으로써 그 使用目的에 따라 按分配定하여 보다높은 効率을
期하자는데 있다. 그러나 最近 우리가 당한 外換危機는 消極的

인 外換浪費의 防止策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外換을 獲得함으로써 外援의 中斷에 對備하여 最低限의 國民의 需要를 充足시킬수 있느냐 하는 重要한 問題로 "크로스.업" 되게 된 것이다.

이에서 우리는 輸出增進을 통한 積極的인 面과 輸入抑制라는 消極的인 面을 同時的으로 達成할수 있는 國際收支 改善策을 講究할 當爲性에 接하게 되었다.

昨年の 刮目할 輸出実績 85.5萬弗도 先進國의 그것에 比較하면 幾十分之一에 不遜한 脆弱性을 不免하는 反面 輸入需要는 年間 400~500百萬弗을 超過하여 構造的인 不均衡이 두텁한바 一面만의 達成은 爲해서 또한 面의 犧牲을 勘耐해야 한다는 것도 또한 目明한 事實이다.

輸出增進을 爲해서는 業者에게 外換의 自由使用을 許容하는 外換預置制을 挾하던가, 또는 現行의 輸出実績링크制에서 100% 完全한 輸入權을 認定하여 業者의 出血을 間接補償해 주는 配慮가 있어야 할것이다. 한편 輸入需要를 줄여 國際收支改善을 達成하려면 現行 買上集中制을 存統하되 健全한 쿼타運營을 하여 外換의管理에 萬全을期함으로써 物資流通을円滑히 하여야할것이다.

2. 現行 買上集中制度와 輸出增大

現行外換制度는 積極的으로 奇与할수 없는 許多한 難點과 副作用이 있어 論難의 對象이 되고 있음은 叙上 한바와 같다.

現行外換制가 論難의 對象이 된 理由를 먼저 61년까지만 하더라도 300~400百萬弗 相當의 輸入需要를 援助로서 카바 하고서도 每年 政府外換保有高를 漸增시켜 구태여 輸出增大로

外換을 벌어드릴 切迫한 必要性을 미처 느끼지도 못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를 反映한 外換制度는 預置集中制를 挾하게 되었다 卽 1961年까지의 우리나라 外換政策의 焦點은 우선 援助로서 提供되는 物資로서 國內의 財貨需給均衡은 一応 達成할수 있었음으로 全體的인 規模에서 自力에 依한 外貨獲得의 增加에 重點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62年以後부터 美國對外援助政策이 弗貨防衛라는 線에 따라 急變하게 되고 그 結果 이제까지 우리나라 外換供給의 太宗을 이루던 援助가 大幅 줄어 들게 되었다. 한편 이같이 外換供給事情이 變한데 比하여 國內의 外換需要는 經濟開發計劃遂行 그 리고 經濟規模의 擴大에 따라 더욱더 增大하게 되었다.

따라서 政府는 外換政策의 焦點을 從來와는 完全히 方向이 다른 國內均衡達成에 두지 않으면 안되었고 이에 따라 外換制度 亦是 오늘날의 外換渠中買上制度로 變更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現行外換制度가 다시금 預置制로의 再轉換을 두고 論難의 對象이 된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나라의 外換保有高가 最底限의 國內均衡을 이룩할수 없게된데 起因하고 있다. 卽 61年末까지만 하더라도 205百萬弗에 達하든 外換保有高가 63年9月에는 無慮 105百萬弗로 激減하더니 그 以後의 緊縮政策으로 1964年3月 現在 133百萬弗을 示顯하고 있어 우리나라 輸入規模를 400百萬弗로 보면 適正外換保高線인 3分の1을 겨우 維持하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現속의 外換政策은 合理的인 輸入과 効率的인 導入物資의 配分을 통한 國內物資需給의 均衡에 力點을 두기 以前에 外換規模自体의 增大에 두지 않으면 안될 地境에 다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現行外換買上集中制度는 輸出業者의 莫大한 出血輸出을 補償할수가 없어 輸出增大에 積極的으로 奇與할수 없게 되어 있다. 이제 그 內容을 잠간 說明해 보면 다음과 같다.

輸出原価가 實勢換率인 230對1 程度인 對數를 適用받는데 反하여 輸出外換은 公正換率인 130對1로 政府에서 買上하므로 프리미엄 50원程度를 勘案하더라도 相當한 額의 損失을 보게 된다. 勿論 이 欠損은 代償輸入에서 補償받을수도 있다 그러나 全面的인 輸出入 링크제의 實施에도 不拘하고 「노. 링크」제의 許容은 昨年の 輸出 85百萬弗에 對하여 K F X輸入이 221百萬弗이나 되어 13百萬弗에 達하는 代償輸入을 하지 못하고 64年度로 移越되었으나 이를 消化하기는 고사하고 新年度 未消化額까지 合하면 3月末 現在로 20百萬弗이나 되어 業界의 資金凍結은 輸出意慾을 喪失케하고 單純히 프리미엄만의 讓渡를 하게되었다.

이와같이 100%의 링크率이 事實上 保障받지 못하여 輸出業界에 損失을 招來케 함에 反하여 政府買上價格이 當該 外貨獲得의 "코스트"를 카바할수 없는 까닭에 輸出은 萎縮을 당하며 이와는 反對로 政府로부터 實勢以下로 購得한 外換需要 量은 相當한 利益을 보게되므로 輸入은 利權化되어 利潤追求의 見地에서 輸出業을 輸入業으로 轉換케 하는 逆現象을 招來하여 實質的으로 輸入만을 助長하게되는 結果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편 이와같이 現行外換制度가 輸出을 萎縮시키는 結果를 招來하였음에도 不拘하고 今年 1.2月中의 輸出実績은 昨年 同期에 比하여 增大되고있다. 따라서 이같은 計數에 立

却하여 現行 外換買上集中制가 現實的으로 妥當한 것이 아니냐고 同制度에對한 贊成理論이 나올法도 하다。 그러나 輸出이 今年들어 伸張한 것은 첫째 換率引上說에 刺戟되어 換率變更에서 오는 損失을 防止코자 去年末에 入金할 輸出代錢을 今年에들어 入金시켰다는 點과 둘째로 輸出이 現實的으로 持續되려면 적어도 半年의 時日은 要하는 것으로 今年度 輸出은 實은 昨年度의 契約分이 今年에 들어 履行된 것에 起因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見地에서 보면 現制度의 持續은 오히려 輸出의 萎縮을 가져올 뿐이다。

3. 輸出增大를 爲한 外換制度

以上の 檢討한바에 依하여 알수있는 바와같이 現行 外換買上制의 實施는 輸出增大라는 目標에 비추어볼때 當然히 再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輸出業者들의 欠損을 政府의 直接 間接의 補償없이 可바 할수 있으면서 輸出業者들의 輸出意慾을 振作할수있게하기 爲해서는 外換預置集中制를 採択하여야 할것이라는 結論에 到達하게 된다。

外換預置集中制는 前述한 바와같이 外換銀行의 自己計定에 預置시켜 그 取得者가 自由롭게 使用할수 있는것을 그 內容으로 한다。 卽 自己獲得弗은 自己가 使用할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나。

이와같은 外換預置集中制는

첫째로 自己獲得外換에 對한 自由處分權이 認定되어 心理的 安堵感을 주고 外換受取行爲를 刺戟하여 輸出意慾을 붙들아 줄 것이고

둘째 外換使用에 있어서 時間的制約을 받지않아 適期에 輸入品을 導入할수 있다。

세째 自己訂定에 外換을 保有하고 있으므로 公正換率의 變更이 라던가 國內物價의 騰貴에 依한 自國貨幣 價值下落에도 損失을 입지않는다.

네째 自己訂定을 갖게 되므로 對外信用去來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노링크" 卽 實需要者 配定을 防止할수 있을것이다.

여섯째 正常的인 價格機構를 通하여 國民經濟의 緊要度에 따라 緊要度가 높은 物品부터 輸入이 自由化되어 長期的인 視野에서 볼때 自由經濟에로의 指同하는바가 클것이다. 그리고

그외에 一定 限度額의 쿼타 獲得을 爲한 不正的인 行政的 腐敗를 防止할수 있다.

勿論 輸出業者들의 損失을 補償하여 主면서 輸出을 促進시킬 方法로 우리는 換率의 現實化를 생각할수 있으나 이는 物價가 어느程度 安定的 基調에서 있어야 되는것인데 現在와같은 物價 體制下에서 換率을 現實化한다는 것은 다시금 物價騰貴라는 相互交互作用의 惡循環을 惹起시킨다는 것이 明確하며 더욱기 大部分의 原資材를 輸入에 依存하고있는 現經濟體制下에서는 換率과 物價間의 相互 交互作用이 銳敏하게 作用하여 換率引上의 効果는 即時 消滅하여 換率의 現實化를 無意味하게 하여 現段階에서는 輸出增大 手段으로서 換率의 現實化는 그 救濟策이 되지못한다.

한편 外換預置集中制의 實施는 結果的으로는 現行의 貿易쿼타 制度를 無意味하게 하고 政府의 物資需給計劃도 度外視하며 結局은 奢侈性 物資의 導入에만 置重할 憂慮가 있으며 實需要 制를 完全히 排除시키므로써 우리나라의 特殊한 流通面을 刺戟

하여 一般貿易業者가 輸入한物資는 中間都売商, 小売商, 代理店, 特約店, 부로카 등과 같은 雜多한 中間段階를 通過하여 原價高를 上昇시켜 製品價格을 騰貴시키므로써 國內生必品 價格高와 더 나아가서 輸出品價格高를 誘發하여 國際競争에 不利해질 憂慮가 없지도 않다.

그리고 또한 直接 外貨獲得이 不可能한 中小企業이나 國營企業체의 活動을 萎縮시키므로써 産業構造上 中小企業이 큰 部分을 占하는 우리나라의 構造的 特質에 비추어 보아 中小企業을 倒座시켜 社會的 問題로 化한다는 점도 亦是 생각해 볼 問題이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 같이 國際收支의 改善을 輸出振興으로 解決하여야만 한다는 점에서 볼 때 預置集中制는 適切한 調整機構을 導入함으로써 위의 雜多한 憂慮를 除去시키면 輸出振興에 奇與할 수 있을 것이다. 卽 奢侈性 物資導入에 對한 集中化를 防止키爲하여 一定한 限度內에서 現行의 쿼타制를 改善하여 伸縮性 있는 運營을 하면 可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貿易業者들의 自由競争에 依한 物資導入은 오히려 輸出原資材의 円滑한 供給으로 化할 수도 있고 또한 몇몇 業者의 独占에 依하여 操作되는 物價의 暴騰現象은 오히려 排除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重要한 것은 解放以後 長時日을 두고 값비싼 政府의 勞苦와 民間의 큰 犧牲을 支拂하여 開拓해 놓은 海外市場을 또한 이제 막 確固한 地盤을 갖추기始作하는 輸出을 쿼타의 適用을 받아 原資材의 確保와 適期導入의 不能으로 適期船積을 못하게 되어 對外信用을 失墜시켜 一時에 잃어버리고 말事態를 防止할 수 있을 것이다.

以上の 考察에 依하여 明白한 바와 같이 現在의 出血輸出에 對한 適切한 補償이 없고 自己稼得弗로도 自家用 原資材를 確保할 수 없는 限 輸出增進이란 있을 수 없으며 우리가 設定한 國際收支改善의 一環策으로서의 輸出增進도 亦是 無意味하게 되지 않을까 疑問視되는 까닭에 現行外換制度를 買上集中制에서 預置集中制로의 轉換이 不可避하다고 할 것이다.